

# 빛으로, 세상으로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6절)

## 세상에 소망 없어 보어도

사랑으로부터 시작된 이야기의 끝은 어디일까요. 우리는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세상을 바라볼 때 사랑의 부재를 보게 됩니다. 미움과 다툼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혐오와 갈등이 우리 사회를 잠먹고 있습니다. 그 누구보다 사랑을 갈망하면서도, 그 누구보다 사랑을 부정합니다. 소망 없어 보이는 어두운 세상의 모습들을 발견합니다. 죄의 모습이기도 하지요. 그러나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이 비추어집니다.

## 사랑으로부터 빛으로

어둠을 밝히는 것은 빛입니다. 아무리 캄캄한 어둠 속이라도 한 줄기 빛이 있으면 소망을 가질 수 있지요. 이 사실을 알았던 종교개혁자들은 ‘어둠 후의 빛(Post Tenebras Lux)’을 구호로 내세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이 회개해진 시대에도 하나님의 등불을 끄지 아니하셨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이 빛을 잃어버린 그분의 백성들에게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참 빛이십니다. 십자가와 부활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생명의 빛을 비추십니다. 깨어지고 갈라진 세상을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완전한 사랑이신 그리스도가 세상의 유일한 빛이 되십니다. 이러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 선언은 우리의 존재를 인식하게 합니다.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한 몸이 된 우리도 세상의 빛입니다.

## 갇혀있는 빛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시다. S.F.C.강령을 통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됨을 우리의 목적으로 고백하지만, 그저 말로만 외치는 것에 그치지지는 않은지요. 신앙생활을 하며 머릿속에 지식은 늘어가지만, 그것이 삶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우리의 약함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 땅에 세워진 교회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하는 교회가 교회공동체 안에서만 머무는 모습들을 봅니다. 혹은 세상의 비난을 받고 빛을 잃어가는 교회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우리의 약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더 담대히 세상 가운데 나아가도록 몸부림치며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선배들처럼 교회의 아픈 모습을 보며 그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임을 고백하고 그 아픔에 애통해하며 회개해야 합니다. 세상의 빛으로 부름받은 우리의 존재와 사명을 끊임없이 확인하며, 교회된 우리는 세상을 향해 빛을 비추어야 합니다.

## 빛 비추어 함께 세상으로

믿음으로 뭉쳐 신앙과 사랑으로 무장한 학생신앙운동원 여러분. 교회의 문턱을 넘어 세상으로 나아갈 때, 치열한 삶의 현장이, 학교 캠퍼스가, 각자의 발걸음이 향하는 영역이 우리를 기다릴 것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빛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구별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깊이 알아가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외면하지 말고 정면으로 마주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아직 실현되지 못한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확장을 위하여 빛으로 살아갑시다.

빛의 모습은 착한 행실로써 드러납니다. 받은 은혜를 따라 자발적으로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가까운 것들, 사소한 것부터 시작합니다. 우리의 행동을 통하여 온 세상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이 일은 홀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가 함께 감당해야 할 사명입니다.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서로를 이끌어 줍시다. 세상뿐만 아니라 서로에게도 빛이 되어 나아갑시다.

사랑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사랑의 이야기. 이 이야기를 시작하시고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역자들과 함께 나아갑시다. 우리의 부족한 손과 발을 통해 세상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불러주신 삼위 하나님께만 영광이 있기를!